

[기획서] 사내 커피머신 도입을 통한 지출 절감 방안

1. 서론

2025년 6월 우리 회사의 총 지출은 118,700 원이며, 이 중 아메리카노 지출은 45,800 원으로 전체의 약 40.6%를 차지합니다. 특히 아메리카노는 월 11 회 반복 구매되는 고빈도 품목으로, 외부 카페 이용에 따른 단가 부담이 큼니다. 이에 따라 사내 커피머신 도입을 통한 원가 절감 및 효율적 자원 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.

2. 본론

2-1. 커피머신 제품 비교

제품명	가격(원)	특징
네스프레소 버쥬오 팝	110,000	캡슐 방식, 소형, 유지관리 용이
매직쉐프 MGF-520	99,400	전자동, 디지털 제어, 가정·소규모 사무실 적합
드롱기 ECAM22.110.B	365,200	전자동, 원두 분쇄·추출 일체형, 대량 추출 가능
드롱기 마그니피카 에보	800,000	고급형, 다양한 메뉴, 대형 사무실 적합

2-2. 선택 모델 및 근거

드롱기 전자동 커피메이커 ECAM22.110.B 를 선정하였습니다. 해당 모델은 원두 분쇄부터 추출까지 일괄 처리 가능하며, 대량 추출 성능이 뛰어나 월 160 잔 중 90% 이상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빈번한 커피 구매 패턴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외부 지출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사양입니다.

2-3. 구매 기대 효과

- **금전적 효과** : 월 외부 구매 유지 시 800,000 원 → 머신 도입 후 310,417 원으로 절감, 월 489,583 원 절감. 손익분기점 회수기간 약 0.7 개월.
 - 외부 구매 유지 시 비용: 월 160 잔 × 5,000 원 = 800,000 원
 - 머신 도입 후 비용:
 - 원두 비용: 월 1kg × 30,000 원 = 30,000 원
 - 유지관리 및 전기료: 월 20,000 원
 - 감가상각비(3년 기준): 365,200 원 ÷ 36 개월 = 약 10,144 원
 - 총합: 약 60,144 원
 - 절감액: 800,000 원 - 60,144 원 = 약 739,856 원
 - 손익분기점 회수기간: 365,200 원 ÷ 739,856 원 ≈ 0.49 개월
- **업무 효율성 향상**: 사내 즉시 제공 가능, 외부 이동 시간 절감으로 업무 집중도 제고.

- **복지 향상:** 신선한 원두 커피 상시 제공으로 직원 만족도 및 사내 복지 수준 향상.

3. 결론

분석 결과, 드룽기 전자동 커피메이커 도입은 단기간 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며, 장기적으로 월 480 천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직원 복지와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는 부가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어, 본 사업은 재무적·비재무적 측면 모두에서 타당성이 높습니다.